



한국포장산업의 현황과 전망

참석자 : 한 용 교 / (사)한국포장협회 회장
최 해 남 /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기술과 사무관
김 선 창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회장
이 대 성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포장개발부 부장
안 백 순 / 한일제관(주) 영업부장
김 태 성 / 두산유리(주) 영업부장
나 근 배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기획부장
손 삼 수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기획조사부 차장

사 회 : 김 영 호 / (사)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

일 시 : 1993년 3월 24일

장 소 : (사)한국포장협회 회의실

정 리 : 권혁황 · 이선하 기자

한용교 :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에서 오는 5월에 월간 「포장정보」를 창간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발행되고 있는 포장 전문지로 월간지와 격월간지가 각각 일종씩 있고, 주간신문도 일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매체만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해온 우리 포장산업계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계제에 저희 포장협회는 다양한 포장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 연구성과들을 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가치있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체 포장산업의 발전을 도모해나간다는 의미에서 「포장정보」지의 발간 사업을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좌담회는 포장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몸담고 계신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한편 「포장정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들어보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포장산업의 현황

사회 : 그럼 먼저 우리나라 포장산업이 걸어온 길을 개괄해보고, 현재 전체 산업에서 포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산업의 소재면에서 볼 때 지류가 가장 범위가 큰 것으로 압니다. 현재 연간 종이 생산량이 500만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포장재로 쓰이는 양과 분야별 비율에 대해 제지연합의 손삼수 차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풀어주시죠.

손삼수 : 종이는 크게 5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포장산업에 쓰이는 것으로 크라프트지, 마닐라지, 일반판지와 골판지, 박엽지, 로울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통계를 보면 70년도에 전체 생산량 중 39.8%가 산업용지로 쓰였고, 76년도에는 산업용지 비율이 57.4%로 문화용지보다 사용량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총 550만4천톤이 생산되어 이 가운데 포장용으로 300만톤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55%의 수준입니다.

사회 : 앞으로 포장부문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손삼수 : 제가 보기에 현재 수준 정도에서 포장물량이 굳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국내 포장재중 제지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합성수지가 30%로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플라스틱 분야도 매우 광범위한데 구성별로 정리된 통계자료가 있는지요?



한용교



포장협회가 다양한 포장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 연구성과들을 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가치있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체 포장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포장정보」지의 발간사업을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 근 배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331만8천톤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여기서 필름·용기·시트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나온 통계자료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포장산업에서 플라스틱의 구성비는 24.4%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나근배 : 솔직히 전체 플라스틱 산업에서 포장부문이 얼마인가 하는 전반적 통계자료는 아직 조사된 게 없습니다. 다만 어느 잡지에서 전체 포장산업에서의 합성수지 구성비를 26%로 밝혀 놓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PVC가 4.5%, PET 12%, PS 13%, PP 26.5%, PE 44%인걸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의 구체적 근거 제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포장산업에서 합성수지의 구성비는 24.4%에 이르는 걸로 조사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이 331만8천톤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서 필름·용기·시트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나온 통계자료가 없어 유감입니다.

사회 : 우리나라 포장산업에서 현재 금속부문이 세번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업계의 현황이 어떠한지 음료관과 식관, 잡관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지요.

안백순 : 우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제관산업이 포장산업에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캔은 일제시대에 처음 만들기 시작했지만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고, 70년대에 들어와서야 농산물 통조림의 수출로 본격적인 생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제관업계는 연평균 20%의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관사가 40여개가 되는데 92년의 시장규모가 5천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지난해 생산현황을 보면 주스음료관이 30억개, 통조림관이 10억개, 기타관이 4억개 정도였던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관은 장치산업이라서 업계가 설비를 늘리다보니 전반적으로 과잉설비가 되어 있으며, 한일·두산·삼화 등 상위 몇개 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 2피스, 3피스의 시장점유율 정도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안백순 : 20억개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3피스캔은 시장수요에 한계가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이나 주스가 투입되는 3피스캔은 점차 탄산가스가 투입되는 2피스캔에 시장을 내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0억개 정도의 시장점유율에 머물렀던 2피스캔이 93년에는 15억개로 늘어날 공산이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대응 제품으로 각광받는 유리병

사회 : 최근 포장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유리산업인데 그쪽의 현황은 어떻습

니까?

김태성 : 85~86년도에 포장산업에서 유리의 비중이 10% 정도였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5%대로 둔화되었습니다.

유리병 시장을 보면 88년부터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데, 업계의 10대 회사가 증설을 계속해와 현재 유리병의 총 공급능력이 100만톤에 이르지만 실제 공장가동율은 75%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리병의 종류별 생산현황을 보면 제약부분이 약 40%로 가장 많고, 식품이 8%, 그밖에 청량음료·주류 순입니다. 시장추세로 볼 때 앞으로 식품부분의 유리병의 수요가 신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김선창 회장께 연포장산업에 대한 조망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창 : 연포장산업은 가공 패턴, 소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뉘집니다. OPP 필름의 경우 연 생산능력이 13만톤에 달하는데 근래 PP 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ET 필름은 연간 12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무연신 3층 필름인 CPP는 1만2천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외 은박은 11만톤 정도가 연간 생산되는데 국내 시장수요가 6만톤 정도이기 때문에 4~5만톤이 남아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업계가 광폭화·고속화로 과잉설비를 한 결과인데

품질면에서 국산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동남아나 중국 등지로의 수출전망이 좋다 하겠습니다. 특히 근래들어 중국의 포장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연포장 분야는 첨단설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와 비교할 때 품질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 : 연포장은 현재 총 생산량 가운데 40% 정도의 물량이 남아 수출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로 국내 수급 및 수출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삼수 : 크라프트지는 거의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와이셔츠곽이나 의약품용으로 쓰이는 백판지는 가동율이 80% 수준인데도 전체 생산량중 50% 가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량의 70%를 중국시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일본·캐나다 등 선진국과 경쟁하다 보니 점차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4억6천만원의 수출고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포장부분이 60%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각 품목별 가동율을 보면 인쇄용지가 75%, 백판지 80%, 신문용지 95%, 크라프트지 90%인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선창



은박은 11만톤 정도가 연간 생산되는데 국내 시장수요가 6만톤 정도이기 때문에 4~5만톤이 남아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업계가 광폭화·고속화로 과잉설비를 한 결과인데 품질면에서 국내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동남아나 중국 등지로의 수출전망이 밝습니다. 특히 근래에 중국의 포장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손삼수



제지부문에서 백판지는 가동율이 80% 수준인데도 전체 생산량중 50% 가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량의 70%를 중국시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하다 보니 점차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각 품목별 가동율을 보면 인쇄용지가 75%, 백판지 80%, 신문용지 95%, 크라프트지 90%에 이릅니다.



사회 : 플라스틱 분야의 수급문제는 어떻습니까?

나근배 : 92년도 플라스틱 산업의 총출하액은 5조9천억원인걸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포장항목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자료가 마땅히 없습니다.

플라스틱쪽도 수출이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합성수지 생산량 500만톤 가운데 40%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원료회사들이 증설을 계속해왔는데 수출길이 막히면 원료시장이 극히 혼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 : 제관업계의 생산용량과 가동율, 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백순 : 제관업계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50% 이상 나기도 합니다. 연평균 가동율은 60~70%인데 성수기에 85% 이상 가동해야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캔의 수출은 운반비 부담이 크고 장기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 수출보다는 내용물을 담아 수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낮고 이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출은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한일제관의 경우는 일본에 소량의 공관을 꾸준히 수출해오고 있지만 채산성보다는 한·일간 기술수준 비교 등 품질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공관을 내 보내고 있지만 중국이 설비를 갖추게

되면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시장은 무망한 걸로 판단되고, 다만 국내 수요가 보다 확대되길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관사들의 설비 증설이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 포장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실태조사를 해오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의 이대성 부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대성 : 저희 개발원에서는 87년 이후 실태조사의 맥이 끊어졌는데 올해 통계자료 정리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포장산업의 전체 생산규모에 대한 통계수치는 발표하는 곳마다 다른데,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두산연구소가 발표한 것을 보면 2조5천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간 「포장산업」의 93년 1월호를 보면 전체 생산액을 4조원으로 밝혀 놓고 분야별 구성비로 종이 및 판지 45%, 합성수지 26%, 금속제 18%, 유리 7%, 셀로판 4%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산견되는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매출규모는 대략 5조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개발원에서는 일본의 JPI가 조사자료를 내놓은 것처럼 올해에 보다 면밀히 포장산업에 대한 통계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문제와 환경 대응

사회 :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에 쏟는 관심도에 견주어 볼 때 세계 5대국에 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현황과 대응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손삼수 : 제지의 주원료는 아시다시피 펄프와 폐지입니다. 여기서 폐지를 상당량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매립하는 데는 부지가 한계가 있고 또 처리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톤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만원~6만원의 비용으로도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 대응책으로는 소각로를 많이 설치하는 길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회 : 플라스틱 조합에서는 여러 분과 위원회를 두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근배 : 플라스틱 용기류는 리사이클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구라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코드제를 도입해 용기의 재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발포 PS는 용용기를 통해 재활용하고, PET는 원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당국이나 업계에서 재생시스템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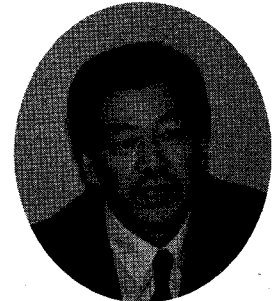
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삼양화학, 동양나이론 등 업계와 조합이 힘을 합쳐 설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필름쪽은 재활용의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소각처리 방법 외에는 빠른 수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회수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느 일방의 노력보다는 업체와 당국,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합치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 제관분야의 환경대응 노력은 어떻습니까?

안백순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제관사들이 협력 투자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캔을 수거해서 알루미늄과 스틸을 구분해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부피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녹여서 일정량을 모으게 되면 이익이 있는데 이처럼 채산성 있는 사업으로 꾸려나갈 계획이고, 또한 스틸캔은 포항제철과 연결을 맺고 처리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수거를 해서 부피를 줄이고 재생공장에 운반해 리사이클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관업체가 전국을 다니면서 캔을 수거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자원재생



안 백 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제관사들이 협력 투자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재활용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을 수거해서 알루미늄과 스틸을 구분해,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부피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유리는 말 그대로 가장 '유리'합니다. 백퍼센트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소비자의 인식 문제입니다. 포장재로 유리가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실제 사용빈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 노력은 소비자 부문에서도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 같은 데서 회수해주면 제관사에 서는 처리센터나 제철소와 연결해 재생작업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러한 방향으로 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작성을 끝내고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행 예치금 요율인 0.4%만으로도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의 해결이 급하다고는 해도 그것을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10년, 20년을 거치면서 정착되어온 제도를 우리 실정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제도의 타당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조업체만 많은 책임을 떠맡아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러 부문에서 공통으로 분담해야 우리의 환경문제가 비교적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 예전에는 재생이란 말이 없었고 폐기·소각이라는 표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재생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종이같은 경우 재생비용이 오히려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전체적인 산업의 파급효과, 영향도를 평가해서 적절히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제관분야의 신제품 개발 계획은 있습니까?

안백순 : 그것은 저희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캔의 경우 틴(Tin·석)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캔은 단위당 틴의 구성비가 외국보다 높은데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전반적인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재활용 가능정도를 높이고 최대한의 원가절감을 위해 캔 두께의 최소화·재질의 일원화·틴 함량의 최소화가 신제품 개발의 방향입니다.

사회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포장산업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이 유리입니다. 과거의 중용량에서 대용량, 소용량으로 바뀌어가고 무색 유리 병도 많이 쓰고 있는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폐기물 예치금제 개선여지

김태성 : 유리는 사실 다른 분야의 제품과 대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다른 분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유리자량을 하기가 좀 곤란하군요(웃음).

국내에 처음 유리공장이 세워진 것은 56년도인데 사실 유리는 폐기물 문제에서 말 그대로 가장 '유리'합니다. 백퍼센트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한데 파유리 10%를 쓰면 2.6%의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소비자의 인식 문제입니다. 포장재로 유리가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실제 사용빈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 노력은 소비자 부문에서도 실천

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정부나 사회단체 주도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회수 가능한 용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연도별로 단계를 설정해 재사용품의 의무적 사용을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기까지 합니다. 스위스는 맥주, 탄산음료, 생수, 주스 등의 제품에는 92.5%까지 의무적으로 병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89년 9월부터 맥주·음료용기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리병 수출 현황을 보면 89년에 12,004톤, 90년에 8,579톤, 91년에 6,344톤, 92년에 3,856톤이었습니다. 유리병의 특성상 물류비용이 높아 주로 홍콩과 일본에 수출하여 왔으나 근래에 동남아권의 상대적인 저가 공세로 수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폐기물 예치금 부과에 대해 저희의 입장을 얘기하자면 일회용 용기에 대해서는 좀더 요율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류병에 대해 부과되는 예치금제는 법령 제정의 취지에도 다소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부담과 행정상의 번거로움만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류병의 대표적인 맥주병의 경우 회수 사용율이 96%에 이르고, 또한 공병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용기와 재

활용 용기와의 요율 차이가 커야 하겠고, 이미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리병에 대해서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고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환경처에서 포장폐기물 관련 법을 만들 때 포장개발원에 용역을 맡겼던 걸로 아는데 이 부장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성 : 지금까지 분야별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Reducing, Reuse, Recycling 등 이른바 3R로 말해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폐기물 문제가 우리 생활에 갑자기 부각된 것은 난지도가 쓰레기 더미로 포화상태에 빠진 이후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92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포장재의 과대포장을 억제하는데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회수비율을 보면 제지가 43.3%, 합성수지가 22%, 금속이 22.9%, 유리가 49.5% 등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해 소비자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독일은 제도적 장치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폐기물 문제에서 가장 골치거리는 스티로폴 용기의 사용인데 아직 적절한 타개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대성



폐기물 문제가 우리 생활에 갑자기 부각된 것은 아마도 난지도가 쓰레기더미로 포화상태에 빠진 이후일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해 소비자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독일은 제도적 장치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폐기물 처리방법은 Reducing, Reuse, Recycling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감량화입니다.





최해남



정부에서도 앞으로 포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의 기초통계 자료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정보가 구축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포장협회 같은 단체에서 전체 업계를 망라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된 사안에 대해 저희한테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건의한다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 참고로 스티로폴 문제에 대해 일본 소니사의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소니사가 스티로폴 대신에 몰드 펄프를 썼더니 클레임은 늘고 매출은 감소하게 되었다는데 결국 환경 문제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지경이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스티로폴을 다시 썼는데, 대신 회수해 재사용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우선적 지구책 필요

지난해부터 경기가 바닥권에 맴돌다 보니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산캐퍼의 과잉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고 있는데다 사회적인 3D 현상, 기능인력의 부족 등 기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여하히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삼수 : 제지는 장치산업이다 보니 자동화의 진전으로 인력문제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영세한 기업이 많고 원료자급도가 낮은 게 문제입니다. 연차적으로 관세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 앞으로 수입지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 : 유리도 장치산업이기 때문

에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공급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동율이 7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적인 측면, 혹은 자원절약적인 면에서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적극 권장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예치금 부과 요율에서도 차등을 확실히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용기를 지속적으로 경량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 연포장산업의 입장도 정리해 주시지요.

김선창 : 연포장 분야는 소재의 특성상 거의 재활용할 게 없습니다. 다만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이 전부인데, 좀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면 기술개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4겹지 필름을 쓰는 대신에 3겹지를 쓴다든가, 그라비아 인쇄에서도 지나친 다색 인쇄는 피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리고 포장산업의 계열화가 현안 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제 생각만인 줄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대성 : 합성수지 등은 이제 단량체로 쓰도록 해야 합니다. 공중합체로 쓰게 되면 나중에 분리가 어려워 결

국은 소각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분리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합성수지에 형광물질을 섞거나 정전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국내에서 생분해성 필름이다 광분해성 필름이다 해서 마치 합성수지가 금방 썩는 양 다소 떠들썩한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의 백화점 등지에서는 이것을 썩는 비닐이라고 지나치게 선전하는 경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 여겨집니다.

사회 : 지금까지 거론된 얘기들을 대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을 육성시키고 진흥시키려면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포장산업에서 분야별 기초 통계자료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포장폐기물 문제는 감량화와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업의 수용 능력과 전체적인 산업의 관계 속에서 형편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업계에 내재화 기업, 소위 Captive Maker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국내 포장산업의 50% 이상이 내재화 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재화 기업이란 대량의 포장재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자회사로 하여금 포장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Captive Maker의

발생 배경을 보면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각각 다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인해 물자 수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지만, 일본은 자기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 크게 작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내재화 기업이 좋은 설비를 들여와 우리 포장산업을 발전시킨 공도 있지만 포장재의 과다 생산으로 모회사의 공급물량을 초과한 부분이 독립적인 중소 포장업체 시장에 가격경쟁으로 파고 들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포장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상공자원부에서 오늘 사무관님이 참석하셨는데 포장업계의 여러 현황을 들으시고 느끼신 점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려주시지요.

포장산업 진흥 정책 필요

최해남 : 지난 해에는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실행에 들어갔습니다만 포장산업 분야는 아직 뚜렷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포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정보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한국포장협



김영호



내재화 기업이 좋은 설비를 들여와 우리 포장산업을 발전시킨 공도 크지만, 포장재의 과다생산으로 중소포장업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장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같은 단체에서 전체 포장산업을 망라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된 사안을 건의해 온다면 정책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포장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업계의 자료와 수렴된 의견이 먼저 제공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뜻에서 월간 「포장정보」지의 발간이 기대되고, 포장협회의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 : 그럼 마지막으로 5월에 창간될 월간 「포장정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손삼수 : 저희 연합회에서 「제지계」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보를 충실히 담고 꾸준히 발간 주기를 맞춰 나가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협회에서 내는 잡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래는 남는 게 책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 자료가 되어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장정보」가 외국의 최신 정보를 많이 담아주길 바라며, 업계동정도 구석구석 실어주길 바랍니다.

나근배 : 사실 자료라든가 정보는 대기업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협회에서 해외의 유용한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업계에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산업 전체를 다룬다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소 무리일 듯도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선 연포장 분야를 위주로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대성 : 기존의 매체하고는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야를 다루되 어떻게 안내해 나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한가지 방법을 얘기해보면 연포장을 중심으로 하되 분야별로 특집을 구성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외국 정보를 많이 다루고, 차차 국내 자료의 비중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성 : 저는 포장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번 제기되었던 기초 통계자료의 정리에도 힘을 기울여 주길 바라고, 그리고 포장산업의 원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합니다.

안백순 : 전체 언론매체에 하고 싶은 말이지만 어떤 개인적인 사소한 이야기 거리를 침소봉대해 과장보도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요컨대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수하는 잡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최해남 : 포장산업의 정보지로 출발하는 만큼 내용적으로 포장산업 전반을 다뤄 주길 바랍니다. 연포장 분야만으로 좁혀지면 결국 수명이 짧아질

여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포장협회가 앞으로 기구를 보다 확대하고 회원사를 늘려간다고 볼 때 좀더 포괄적인 매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외국의 최신 정보를 많이 실어 달라는 것입니다.

김선창 : 협회의 발전사에 맞게 우선은 연포장을 중심으로 꾸며 나가고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감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정보를 균형 있게 실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사회 :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앞으로 월간 「포장정보」가 우리 업계의 사랑받는 잡지로 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용교 : 지금까지 장시간 좌담회를 통해 좋은 말씀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협회에서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추진 자료를 일선 조합과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에 나와주신 최사무관님께서도 우리 포장산업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 줄로 믿으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